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8:9-15
2026 년 10 월 18 일 오전 11 시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 주여 도우소서 >

여러분, 예수님께서 웃으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5).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절입니다. Jesus wept. 그러나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여 웃기셨다는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 성화도 흔하지 않습니다. 지난 2 천 년 동안 기독교 미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 때로는 슬퍼하시거나 고통당하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 2:4). 그러나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모세, 다윗과 엘리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웃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외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창 17:17).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웃었을까요? 별것 아닙니다. 백 세 할아버지와 구십 세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 18:9-15)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창 17:16).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도 참 농담을 잘하십니다.

1. 웃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허 하고 웃었는지, 꺄꺄 웃었는지, 아니면 빙그레 미소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 이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기 어려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해 달라고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8).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9).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웃음과 별 관계가 없는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웃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기쁨과 웃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웃음과 기쁨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허나 희락은 맨 나중에 나옵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도 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 18:9-15)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의와 함께 평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기쁨과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있는 가정, 교인들 사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 안에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그저 웃고 떠들기만 한다면, 그 웃음은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 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전 7:6). 가시나무는 불이 붙으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지만 금세 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불의를 외면한 채 누리는 웃음은 잠시 즐거울 수는 있어도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약 4:9). 죄 때문에 슬퍼하고 불의 때문에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웃음은 죄와 불의를 외면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웃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웃기시는 하나님’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기시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터무니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은 것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한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훗날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에도 웃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시 126:1-2).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을 낳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이루심으로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웃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창 17:21). 또한 창세기 18 장 10 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창 18:10).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내년 이 시기’,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창세기 17 장과 18 장의 사건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7 장에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18 장에서 손님을 달려 나가 영접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2 절). 이로 보건대 적어도 할례의 상처가 회복된 시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며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9 상반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찾아온 손님들이 어떻게 안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더구나 사라란 이름은 불과 얼마 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 18:9-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을 사라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9 하반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0 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11 절). 게다가 성경은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12 절).

사라는 소리를 내어 웃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13 절). 사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웃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 사라는 그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이 정확히 어떤 감정에서 나왔는지 모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4 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입니다. 그리고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 18:9-15)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형편을 생각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은 웃음이 나올 만큼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자신의 전능하심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보이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이루신 웃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탄생이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선언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15 절). 속으로 웃었던 사라는 자신의 웃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흔 살을 바라보는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진짜 웃음은 그 후에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임신하였고, 아브라함이 백 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 18:9-15)

창세기 21 장 6 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 21:6).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 어려워 속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에 기뻐 웃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라 혼자만 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이름도 이삭, ‘웃음’입니다. “이삭아!”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라처럼 웃음을 잃어버리고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삭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워 웃던 사라를 마침내 기쁨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보며 웃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픔 가운데 위로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눈물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